

기도로 꽃피워 선교로 열매 맺자!
함께 해온 이십년 사랑으로 한마음!

광 영

제 58호
2006. 5. 1.



천주교동천도성당
광 영

www.dcl.or.kr

‘당신 사랑에’

김춘선(스콜라스티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님.
당신의 젊은 아들을
저희 죄와 구원 위해 가슴에 묻으니,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피눈물의 통곡, 붉은 장미 꽃잎 되어
뚝뚝 떨어지고 바람도 슬피 울었다.

부활의 소망 있기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환한 미소.
“내가 주는 사랑의 씨를 뿌려라.”



주님과 함께 부활을 꿈꾸며

| 노경래(광열요한) |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요한 12,27)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표현하였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 놓을 수 있을까? 작은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일을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려는 이기심이 스스로를 나태하고, 황폐하게 함을 봅니다.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자녀인 척 행동하면서, 내면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묵상에 해봅니다.



얼마 전 갑곶순교성지에서 고해성사를 보며 나 자신을 또다시 정화한 후, 좀더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 가는, 주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앙생활의 실천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까페나 등...

사순시기에 우리 부부는 서로 말로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가정을 닮아 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죽고 나서 신심생활을 하라? 죽고 나서 성인성녀 되라? 살아생전에 주님의 사도 되시
주님! 제가 버려야 할 목숨은 그 무엇인지요?
제가 이웃과 나뉘야 할 목숨과도 같은 것은 그 무엇인지요?
제가 제 목숨처럼 아끼고 집착하는 것은 그 무엇인지요?
다른 것 모두 다 버리되, 영원한 생명은 붙들게 하소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나눔이요, 배품이라면 과감히 실행케 하소서!
그것이 희망의 믿음이라면 영원히 간직케 하소서, 아멘!

미사에 대하여

말씀에의 봉사 - 강론 -

| 주임신부 정광웅 |

1) 수 백년동안 강론이 미사 진행 과정에서 높이 평가를 받지 못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강론이 별로 중요시 되지 않았다. 주일에는 라틴어 미사가 거행되었었고, 당시 신자들은 늦게라도 미사 중 봉헌예물 때까지만 성당에 오면, 주일의 의무를 채웠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말씀의 전례 및 강론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셈이다.

2) 오늘날 미사시간은 강론으로 인해서 좀 길어졌다. 강론을 짧게 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강론이 없다면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강론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실제로 강론이 없어도 미사는 유효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종교혁명(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성찬의 전례를 매우 드물게 거행하는 반면, 말씀의 선포를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이때에 가톨릭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침묵 중에 라틴어로 주일미사를 거행했다. 그러나 그 당

시에도, 프리텐던 공의회(1562년)에서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미사 중에 봉독된 말씀을 설명해 주라"고 주교와 사목자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일과 축일에 신자들과 함께 하는 모든 미사 중에는, '강론을 해야 한다'고 명백히 지시하고 있다.(전례헌장 52조) 강론은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다. 강론은 근본적으로 미사에 속하며 전례의 한 부분이다. 모든 사제의 제일차적 직무는 자신이 스스로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이다.

5) 공의회는 전통에 따라, 말씀의 식탁과 빵의 식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말씀의 선포는 시초부터 전례의 본질적인 부분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강론 없는 미사는 본질을 빼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성찬의 전례가 없는 미사가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식탁도 풍성히

마련되어야 하며, 한 두개의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봉독된 말씀에 대한 설명은 필연적이다. 성서의 말씀도 그냥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6) 미사경본 총지침에(41항)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론은 전례의 부분이며, 매우 권장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강론은 크리스찬 생활의 양식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론을 정구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본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7)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로마10,17)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주일미사 강론은 신앙교육을 위하여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오늘날 신앙과 대치되는 것들이 마스크를 통하여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한 기회를 20-30분도 안되는 강론으로 맞설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해서, 강론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강론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해야 한다. 강론마저 없다면,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선포의 말씀은 더욱 더 듣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 강론은 신앙을 깊게 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준비하며, 미사성제를 올바르게 봉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강론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사도 바오로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코린전 9,16-) 라고 고백해야 한다.



본당을 떠나며

고성현(미카엘라) 수녀



이곳에 온 지도 어느새 2년 남짓 시간이 지나 떠난다는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미사 때는 성가대에서 '송가'를 불러주었는데, 평소 좋아하던 그 노래에 문득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길을 찾던 우리들
뒤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사랑이었소

다른 곳에 떨어져 헤어져 피어난대도 똑같이 하늘 우리러 향내음을 풍길 꽃송이러오. ♪

본당소임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과 얼마나 함께 하고자 하시는지 또 은총과 사랑을 얼마나 쏟아 부어주고 계신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맞이한 첫 부활절과 성전봉헌식, 전례준비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던 제게 신자들을 통해 느껴지는 그 감동의 순간들이 제게는 부활의 기쁨이고 은총이었습니다. 아이들,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순수함, 사랑으로 자라나는 그들과 더불어 제 안에 하느님께서 주신 넘치는 생명력을 발견하고 밝음이 솟아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며 신부님을 비롯한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 모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소중한 지체로서 삶을 충만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김동원(요안나) 수녀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의 기쁜 부활을 경축하며 지내는 성교회 안에서 요즈음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본당의 특별한 배려로 저의 종신서원이 이루어진 이 등촌1동 성당에서, 교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맞갖은 은총과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미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대송으로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면 고백성사를 안 해도 되나요?

조명준(로마노) 신부



원칙적으로 주일 미사를 거르는 것은 대죄에 해당합니다. 대죄 중에 영성체를 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일 미사에 참례하려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참례치 못한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공소 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3항). 또한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송하던 규정을 성서 봉독, 묵주 기도,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 할 수 있다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4항).

따라서 도저히 미사나 공소 예절에 참례할 수 없는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장기간 성당이 없는 곳으로의 해외여행이나 체류 등으로 인해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신자의 경우는 그 기간 중에 묵주 기도나 성서 봉독, 기타 선행 등을 실천하면 주일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고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고해성사를 볼 때 미사 참례를 위와 같은 이유로 할 수 없어서 묵주 기도, 선행, 성서 봉독 등을 실천하였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지체하다가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칭찬 이어가기



백은숙(마르타) 자매님을 칭찬합니다.

성당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마치 내 집안 일을 하듯이 1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고 있는 3지역장 백은숙(마르타) 자매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본당의 변천과 함께 울고 웃으며, 반장에서 구역장으로 또 지역장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자매님의 예수님 사랑을 교우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자매님은 시부모님도 잘 공경하여 우리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백은숙(마르타) 자매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추천인 : 김현옥(아델라이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 칭찬하고 싶은 신자 등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성모성월과 레지오 단원의 성모 공경

| 자비하신 모후 꾸리아 단장 김규명(스테파노) |



장미향 그윽한,
아름다운 5월은 성모의 달

11세기경에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를 공경하기 위해 12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 단식하고 기도하며 축제를 지냈다. 그러다 카스티야(스페인 중부의 옛 왕국)의 왕인 알폰소 10세가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필요로 움에 감사드리면서, 한달 동안 기도할 것을 권고하여 5월을 성모의 달로 기념하던 전통이 서방교회로 전파되었다. 17세기말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수도회에 성모공경 단체가 설립되면서 5월 한달 동안 성모호칭기도를 노래로 바치고 마리아께 장미화관을 봉헌하며 축제를 지내다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반포한 후, 성모성월 행사는 장엄하고 공적으로 거행되었다. 또한 교황 비오 12세는 교서를 통해 '성모성월 신심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례에 속하지 않지만, 전례적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한 신심'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모님이 그분의 삶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겸손, 순명과 사랑을 본받고자 함이다. 성모님 공경은 예수께



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듯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

성모신심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21년 9월 7일 프랭코 더프가 창설한 레지오 마리아다.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신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기도와 선교와 영적 지도를 돕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1953년 한국에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3만 여 개의 브레시디움과 30만 명의 행동단원 그리고 25만 여명의 협조단원으로 성장해 왔다.

등촌1동 성당 레지오의 신실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싶어

올해 초 갑작스레 꾸리아 단장이 되고 나니 너무 겁이나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도와주시는 주님과 성모님,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을 믿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기쁘게 꾸리아 단장의 소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영적 지도자이신 주임신부님과 꾸리아 간부님, 또 브레시디움 간부님들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협조를 받아 신심과 활력, 사랑이 넘치는 꾸리아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싶다.

사령관이신 성모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희와 저희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주님께 빌어주소서!

특별했던 나의 영세식

Ⅰ 27구역 전성만(미카엘) Ⅰ



내 생애의 잊지 못할 부활절

2005년 7월부터 성탄반 교리교육에 입교해서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밤에도, 친구들이 미팅하자는 유혹도 뿌리치며 한결같이 교리 공부에 임했다. 드디어 6개월간의 교리를 마치고, 성탄반 영세식이 있던 12월, 인터넷을 뒤지고, 봉사자에게 물어가며 고심 끝에 세례명까지 지어놓고 영세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자격증 시험 날짜와 중복되고 말았다.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난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준비가 부족하니 여섯 달을 기다리라. 부활절에는 내가 너를 꼭 부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하여 2006년 부활반 영세식까지 참기로 했다.

그렇게 기다렸던 영세식!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게 된 축복의 자리이었기에 그 감동은 두 배로 컸다.

1년 동안 미사에 참여할 때, 다른 교우들이 영성체를 모실 땐 한 칸에 비껴서며 가슴에 젖어들던 그 서늘한 소외감...

이제 그 소망을 이루었다.

내 인생의 빈 무덤을 빛으로 채우리라

성당으로 가는 길옆에 흐드러지게 핀 노란 개나리꽃이 눈부시다.

지난 겨울 내내 꽃과 잎을 떨구고 죽은 듯이 잠자던 잿빛 개나리 나무가 추위 속에서 꽃과 잎을 피울 새 생명의 잉태를 준비했었나보다.

아직 취업을 준비중인 이 상황이 나에게 빈 무덤의 시기라고 여겨진다. 빈 무덤은 부활의 의미이다. 굳이 반년을 기다리게 하고 부활절에 나를 부르신 그 뜻은 무엇일까?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내 인생의 빈 무덤을 채울 빛을 만들어 가리라.



성목요일 '주의 만찬 미사와 발 씻김 예식'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는 미사이다. 수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함께 당신의 몸과 피를 사랑의 유산으로 주신 이날을 기념하여 말씀의 전례, 세족례, 성찬의 전례를 한 다음,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밤샘 성체조배를 한다. 성체성사와 사제직을 주시고 형제적 사랑을 가르쳐주신 주님 만찬 미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셨기를 바란다.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는 예식을 하는 이날은 일년 중에 유일하게 미사가 없다. 말씀의 전례에서 수난복음을 읽고 십자가 경배, 영성체를 한다. 부활 성야 전까지 제대 앞에는 십자가가 계속 모셔져 있다. 내적 침묵 속에 십자가를 경배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

부활성야



빛의 예식과 함께 장엄하게 시작된 부활 성야. 어두운 땅에 여명이 오르듯, 모두의 마음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다. 아름다운 부활찬송에 이어 말씀의 전례(하느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인류구원, 자비에 관한 내용)와 성세예절, 성찬의 전례까지 엄숙함과 거룩함이 깃든 미사에 주님 부활의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와 함께 늘 현존하시는 주님, 살아나신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부활을 축하하도록 하자.



여성23구역

| 구역장 장미숙(리사) |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산수유가 앞다퉈 피어나는 4월 둘째 주, 여성 23구역(2반)을 찾아갔다. 우성 아파트 심화자(마리아) 자매님이 환한 얼굴로 자매님들을 맞이해 주셨다. 반모임에 참석한 가능한 아홉 세대 중 여덟 세대가 함께 한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마르코 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였다.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활짝 핀 봄꽃들과 자라는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살아나셨고-사순시기 동안, 집 문제와 공금 가방을 잃어버린 일과 성당 전례 때 있었던 당혹스러웠던 일 등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생각했다. 부활을 맞으며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우셨을 예수님을 생각했다.

다시 살아 나셨고-예수님의 고통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이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다. 남은 마지막 한 주는 뜻있게 보내고 싶다.

가서 보니-어려운 친척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 친척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올 사순 시기는 다른 해보다 뜻있게 보내는 듯 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이 성당에 열심히 다녀서 기쁘다.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구역의 전통

나눔을 통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구역의 정이 참으로 끈끈했다. 자매님들 모두가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반장과 구역장을 뽑을 때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23구역의 전통이라고 자랑하셨다.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23구역(2반)의 공동체적 사랑이 파스한 봄바람을 타고 다른 구역으로 전파되길 바란다.



구역모임에 나온 봄맞이 진달래 화전.

기도하는 가정을 찾아서 ...

| 5지역 김일랑(말구), 이영희(마리아) |

‘그 댁에 가고 싶다.’

매일 미사 참례는 기본이고 십자가의 길, 특강, 피정 등 성당 행사에도 절대 빠지는 일이 없는 이 부부가 눈에 들어온 뒤로, 가정탐방을 꼭 해보고 싶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 양반이 넘어질까 걱정스러워 손을 잡고 다녔는데 금실 좋은 부부로 봐주시고, 교우 분들이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니 하느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저희가 할 말이 있나요.” 5년 전에 형제님이 쓰러질 때는 대소변도 통제가 되지 않는 형편이라 성당에 나올 꿈도 꾸지 못했는데, 운동 삼아 조금씩 걸음을 옮긴 것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임을 일깨워 주시고

성당을 가다가 화살기도 중에 느닷없이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조그마한 갈등이라도 생기면 오히려 “하느님은 참 좋으신 분이여.”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시니 그 행복한 마음의 비밀은 무엇일까. 날마다 세 번의 삼종기도와 매일미사 참례, 다시 평화방송 미사를 시청하고 묵주기도, 잠들기 전 가족이 모여 드리는 밤 기도까지 기도의 향기가 듬뿍 났을 생활이 삶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10분만 지나면 뭐든 기억할 수 없어 고해성사가 어렵다는 형제님은 금요일의 절제를 내세우는 자매님에게 계속 TV를 쳐달라, 커피 달라 아이처럼 떼를 쓰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밝은지 “저도 주세요.”라고 함께 웃으며 자매님의 두 손을 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은총덩어리’

교우촌(충남 아산 도고성당)에 살았지만 교우 집안은 아니었던 자매님은 어렸을 때 경기(驚氣)를 하도 많이 해 마리아란 세례명으로 대세를 받았는데,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소망대로 5대째 구교를 믿던 형제님과 맺어졌다고. 덕분에 삼 형제(순혁 레오, 순용 바오로, 순재 베드로)를 낳고 키울 동안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없이 지금까지 지내오셨다. 재산이 많으면 교만하기 쉽고,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욕되어 죄가 되니, 대대손손 하느님 믿는 마음만 놓지 말고,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시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곧 ‘은총덩어리’라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가는 두 분의 가슴에 늘 하느님의 사랑이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길 기도드린다.

청년 전례단

| 단장 조재연(도미니카) |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전례단 단장 조재연(도미니카)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 청년 전례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미사에 생동감을 주는 청년 전례단

저희 청년 전례단은 전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임으로 주일 7시 청년 미사 때 미사해설과 청년복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우들을 이끌어 주고, 제대에 계신 신부님 옆을 지키는 능률한 복사들이 바로 저희 청년 전례단입니다.

이외에도 미사 전 독서자 및 보편지향 기도자들의 교육과 봉헌바구니 관리 및 봉헌금 카운팅 등 미사전 때 필요한 전반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미사 해설은 저희 청년 전례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미사 전·후로 제대 및 신부님 제의 등 미사 준비 및 정리 도 저희 청년 전례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청년 전례단은 단장, 부단장, 회계 및 서기와 1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회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를 위해 열심인 무대 뒤의 멋진 스태프들

그 동안 미사해설이나 복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전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제대 위에 설 용기가 없었던 청년 여러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청년 전례단의 문을 두드리 주세요. 미사 전후 저희 전례단원들이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교우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사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멋진 무대 뒤의 스태프라고 생각하며, 늘 좋은 모습으로 미사 때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청년전례단이 되겠습니다.

손끝장이 공방

손끝장이공방
1664-1967



가느다란 손끝에서 탄생한 각양각색의 세상이 있다. 이곳에는 그 옛날 서당 훈장에게 종아리를 맞던 아이들이 천자문을 읊고, 파사로온 봄날인데도 공방 안에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가 지천에 피어있다. 이 시공을 초월한 세상의 산실은 바로 염창동 강변성원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손끝장이 공방(원장 나은실루시아)'이다.

종이접기 취미가 직업되어 프랑스까지 작품 전시

손끝장이 공방은 루시아 자매님이 처음 종이접기를 배운 지 10년만에 문을 열었다. 2004년 집안이 발 디딜 틈 없이 작품들로 넘쳐나면서 공방을 내게 된 것. 그동안 루시아 자매님은 다큐이, 스탠드글라스, 점토, 클레이아트 등 공예영역을 넓히며, 종이접기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녀의 한국예원문화협회 초대작가상 작품 '서당'은 프랑스 파리에 전시되기도 했다.

공방 교육은 주부반과 아동반, 직장반으로 나뉘 오전, 오후 운영한다. 주로 수강 횟수보다 완성 작품 수에 따라 진행한다. 스스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색채감과 응용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색깔을 배합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재료들을 조직해 나가며 기쁨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출강과 한지 공예를 익히기에 한창이라는 루시아 자매님은 앞으로 공방 앞 가파른 계단을 개조해 이젤과 테이블을 놓을 꿈에 부풀어 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갤러리 닮은 공방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남편과 "앞으로는 꼭 미사 드리자" 약속

루시아 자매님이 불쑥 부활절 계란 인형을 내밀었다. 부활절을 맞아 방금 만들었다며 멋쩍게 웃는 자매님은 큰딸 안나를 가졌던 임신 6개월 때 세례를 받았다고. 기도 속에 낳은 딸은 어느덧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은 그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얼굴을 붉힌다. "앞으로 미사에 빠지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고 남편과 약속했어요." 수줍게 웃는 루시아 자매님의 얼굴에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온 병아리 얼굴처럼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섣노란 희망이 엿보인다.



나은실(루시아)/김종승(아우스팅) 02-3664-1967

호롱 불



판공성사

4월 4일부터 6일까지(저녁 8시~10시)까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님 네 분이 오셔서 본당 신부님들과 함께 부활 판공성사를 주셨다. 교회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본당에서는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 매번 일정기간 동안 외부 신부님들을 초청하여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지오와 사목회에서 교우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심성찰을 하고 성사를 보도록 수고해 주셨다. 사순시기의 절제와 회개를 통해, 성사의 은총을 통해 주님 부활의 기쁨을 더 크게 나누셨으리라 믿는다.

사순 특강



4월 7일(금) 오후 8시,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주제로 약 250여 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송봉모 토마스 신부님(예수회)의 사순 특강이 있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매순간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바쁠수록 그분과 나만의 시

간도 가지라고 당부하셨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부활반 영세식



4월 8일 오후 3시, 대성전에서 미사와 함께 부활반 영세식이 있었다. 6개월 동안 교리교육을 마친 41명의 예비신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세례성사 후에는 혼인예식과 갱신예식이 이어졌다.

대성전을 가득히 채운 친지와 교우들은 꽃다발과 선물과 축하하는 마음을 건넸고, 주임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서게 된 영세자들에게 충만한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나눔의 생활을 통해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겠다.

부활 계란 판매

4월 16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청년연합회에서 '부활계란'을 제작·판매하였다. 3월 중순부터 기획하여 4월초부터 본격적인 재료준비와 제



작을 하였는데, 본당에 있는 청년단체들의 여론수렴과 협력으로 모든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덩으로 서로가 친교를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올 부활에는 바구니와 양은냄비를 활용한 꾸러미가 선보였는데, 특히 양은냄비 꾸러미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모든 판매 수익금은 새로운 '청년 미사곡' 책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공 지 사 항

연령회와 선종봉사회 통합

본래 연령회와 선종봉사회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교회 관례에 따라 지난 3월 하나로 통합하여 '연령회'라 칭하고, '연령 봉사부' '연령 기도부' 2개의 기구를 두었다. 세상을 떠나는 본당 교우들의 호스피스 봉사 및 연령을 위한 기도와 상가 봉사를 함으로써 회원의 성숙된 신앙생활은 물론 선교에 목적을 두고 활동할 것을 회칙으로 정했다.

이성근(엘리아) 회장님은 연도가 나면 연령회 회원은 장례절차를, 구역에서는 상가안내와 장례미사 안내를 분담해야 하는데 구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연도 시에 구역과 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다. 연령 기도부는 월 1회, 연령 봉사부는 매주 화요일 대건방에서 회합이 있다.

광현지 원고 모집

등촌 1동 교우 분들의 신앙체험, 자유 형식의 기도문, 활동 사제 및 에피소드, 생활 속 이야기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기다립니다. 분량은 원고지 4-6장이며, 언제든지 011-782-4031(김애선리디아)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광현지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짜임새 있는 지면이 될 것입니다.



'하늘 땅 물 벗' 회원 모집

2004년 1월 첫 문을 연 '하늘 땅 물 벗' 등촌1동 성당 우리농 매장이 운영 3년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이 모임은 하느님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한 환경운동과 농촌과의 연대 운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 1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매 미사 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유기체로서 '소박한 농민활동가'로 일할 의욕적인 회원을 모집한다. 여러분의 작은 분초(分秒)를 모아 우리농이라는 큰 바퀴를 굴려주시기를 바란다. 연락처 : 회장 권영일(마리아) 019-415-4564

〈 행사 결과 〉

(4월 21일 현재)

월	일	요일	내 용	참석인원
4	4~6	화~목	부활 판공성사 한식 합동 위령 미사	232
4	7	금	사순특강(주제 : 세상 한복판에서 그 분과 함께, 강사 : 송봉모 신부님)	
4	8	토	영세식(영세자 : 41명)	
4	9~15	일~토	성주간	
4	13	목	주님만찬 성목요일 (구역-성체 조배)	
4	15	토	성 토요일, 부활 성애청년회-계란판매, 수익금: 2,066,000원)	
4	16	일	예수부활 대축일	
4	21	금	고미카엘라 수녀님 떠나심, 김요안나 수녀님 오심	

〈 5월 행사계획 〉

월	일	요일	제 목
4	27	목	자모회 성지 순례
	28	금	4월 신앙학교(주제 :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 강사 : 박용수)
5	2	화	첫 영성체 교리 시작
	2	화	여성구역-우이동 명상의 집 피정
	20~21	토~일	본당 설립 20주년 행사 1. 전야제-성가 합창제, 20일 오후 7시 성당에서 2. 기념 미사 및 한마음 축제-21일 오전 9시 빗물펌프장에서
	27	토	성모의 밤
	28	일	첫 영성체



환영합니다!



(4월 21일 현재)

이 름	지역/구역/반	이 름	지역/구역/반
이주호 (요한금구)	01-01-01	신춘일 (미카엘)	05-14-01
박선영 (미카엘라)	01-02-01	이순호 (그레고리오)	07-21-02
양영선 (안나)	01-03-05	김병석 (알렉시오)	07-22-03
장석주 (세라피나)	02-04-03	강재희 (가브리엘라)	07-23-04
김은경 (스텔라)	02-06-01	고선영 (엘리사벳)	07-23-05
김보숙 (마리아)	03-09-01	김정규 (베다)	07-23-05
임광연 (세레나)	03-09-02	송인선 (헬레나)	08-24-03
김용주 (안토니오)	03-10-01	송옥란 (베로니카)	08-25-01
천기문 (아오싱딩)	03-10-01	이성연 (스테파노)	08-25-03
김영수 (요한)	03-10-02	김순자 (엘리사벳)	08-26-03
오중국 (대건안드레아)	03-10-02	이덕수 (돈보스코)	08-26-03
안현보 (베로니카)	04-11-01	김홍석 (베드로)	08-27-03
장현덕 (마르코)	04-11-03	홍순섭 (스테파노)	08-27-03
정창용 (예로니모)	04-12-01		

▶선종자 명단
이갑득 마리오

2006-04-12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

이사하기 며칠전 구성전 지하실에서
연습중인 우리의 자랑 풍물패!
행사 때마다 빛내주던 풍물패의 역사는 바로 우리 성당의 역사이다.



광 언

제 58호
2006년 5월 1일

발 행 : 정광웅(요셉)신부 / 편집 : 김기인(마르띠노)

보좌신부 : 조명준(로마노)신부

수 녀 : 송은경(루시아), 강인숙(로마나), 김동원(요안나)

홍보분과 : 김애선(리디아)

편 집 실 : 안건모(안셀모) · 권혁순(글라라) · 박상철(아드리아노) · 임유경(첼리나)

강서영(미카엘) · 정옥희(데레사) · 오종민(안드레아) · 이명희(첼리나)

최지혜(로사리아)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36-48 ☎ 3662-8625-6

본당 설립 20주년 기념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되게 하소서!

전야제-성가 합창제

- 일시 : 2006년 5월 20일(토) 19시(특전미사 없음)
- 장소 : 본당 대성전

기념미사와 한마음 축제

- 일시 : 2006년 5월 21일(일) 9시~17시
- 장소 : 가양 빗물 펌프장 내 체육시설
- 행사 구성 : 제 1부 야외 미사(미사중에 20년사 봉헌)
제 2부 한마음 축제
제 3부 시상 및 폐회식(장내 정리와 청소)

등촌 1동 성당

주최 :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촌1동성당 사목협의회